

Simpler isn't always better!

인공위성 형태의 일체형 강판

Satellite

주방 내에서 평범과 비범을 결정짓는 한끝은 역시나 '디자인'이다. 상식을 비트는 올인원 그레이터, 새틀라이트의 발견은 곧 새로운 조리 방식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.

클 이나리 | 도움주신 곳 DESIGNNOBIS
(www.designnobis.com)



강판의 진화가 흥미롭다. 딱딱했던 과거 디자인에서 벗어나 색과 형태의 다채로움을 더한 일상 속 소품으로 거듭나고 있는데,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그룹 '디자인 노비스(DESIGNNOBIS)'의 '새틀라이트(Satellite)'는 여기에 과학적 포인트를 하나 더 추가했다. 각기 다른 칼날을 탑재한 본체의 사면이 넓게 퍼질 수 있도록 제작한 것.

제품명을 보고 의아해했던 이들이라면 흡사 인공위성과 같은 모습을 본 후 금세 수궁이 갈 것이다. 본체 하나를 두고 여러 종류의 칼날을 교체하는 디자인은 흔하지만 서로 다른 칼날을 모두 품고 있는 형태는 꽤 이색적이다. 단순한 디자인과 손쉬운 사용에 엄지손가락을 드는 사용자라면 불필요할지 모를 장치이지만 채썰기 등 재료 손질이 잦은 편이라면 새틀라이트는 한 걸음 나아간 편의성을 제공해준다.

크기와 종류별로 마련된 강판은 때마다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, 테이블웨어나 조리도구에 걸칠 수 있는 날개 디자인은 원하는 곳에 바로 식재료가 슬라이스 되도록 돕는다. 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공간을 절약해준다. 이렇듯 때로는 심플함보다 사용 목적을 적절히 배려한 디자인이 본래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새틀라이트는 넉넉히 제안한다.

올인원 그레이터 새틀라이트는 '하켄 귀르세(Hakan Gürsu)'가 디자인했으며 그린과 블루, 옐로, 오렌지 등 파스텔 색상으로 선보인다. 구매 문의는 홈페이지(www.designnobis.com)나 이메일(info@designnobis.com)을 통해 가능하다. ☐

